



남원경찰 도통지구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는 최근 기습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편의점을 방문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어”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동권 도통지구대장은 “새로운 방법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1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모든 기능의 계·팀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 치안 문제에 대해 기능간 연결·조정·공유(3C)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치안 정책 등을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무주읍·풀마트 사거리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방안과 ‘공·폐가(빈집)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각 기능별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 협조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마을 방범용 CCTV,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시설물 확대 설치를 위한 자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폭설 비상근무 교통경찰 격려 간담회

장수경찰서(서장 함영욱)는 지난 18일 폭설 대비 비상 근무를 시행한 교통관리계 직원들과 격려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17일 장수 관내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라 관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제설작업과 결빙구간 수시점검 순찰 등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 비상 근무에 임한 교통관리계 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화재피해 주민에게 새 희망을”

순창소방서,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자 선정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18일 순창군 적성면 소재 불의의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순창군민을 순창 최초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119행복하우스란 201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화재피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주민에게 새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후원한다.

특히, 이번 119행복하우스는 순창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순창의 첫 결실이자 전라북도 3번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공사를 진행 후 화재피해 주민에게 새 삶의 터전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행복하우스 대상자는 5월 입주할 예정이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지역 안전과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따



뜻한 소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공하는 2020년 ‘119행복하우스’ 소방서비스의 첫 결실을 순창 주민에게 제공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김제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사랑의 쌀 기부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쌀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원단과 함께 최근 제주시에서 위치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을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김제쌀을 제주지역에 기부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6월 업무협약을 맺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사랑의쌀나눔과 김제쌀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매년 김제농협은 사랑의 쌀 나눔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정용 조합장은 “사랑의 쌀 나눔기부가 보호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전생활 홍보

남원경찰서는 최근 도통동 농협 47에서 봄 방학을 맞이해 학교 나 가장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생활을 위한 길거리 홍보를 펼쳤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 중학교 의무교육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유무 유예,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한 청소년들로, 이번 홍보에서는 거리활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 및 홍보물을 배부했다.

함현배 서장은 “남원경찰은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위해 학교기관 및 학교 밖 프로그램에 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경찰서장, ‘여성안심 귀갓길’ 현장 시설 점검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최근 경찰서장, 생활안전계장, 범죄예방진단팀을 점검단으로 구성해 관내 7개소 운영 중인 ‘여성안심 귀갓길’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년도에 익산시와 협업을 통해 설치한 방범용CCTV 12개소, 안심비상벨 4개소, 안내 시설 10개 등 총 26개 시설물에 대해 실시했다.

아울러 익산경찰은 올해에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높이고 탄력순찰을 활용한 치안체감도를 높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국전력과의 협업을 통한 ‘전신주 안심 신고망 구축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 교통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서장, 생활안전교통과장, 지구대장, 각 파출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 등을 분석, 2020년 효과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도출된 의견은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반영기로 하였다.

겨울철 블랙 아이스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시설물을 수시 점검, 덤프·화물차량 등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상주 서장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 및 지역경찰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근무 총력 대응하

익산경찰, 기숙사·운동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가 방학 기간 기숙사 및 운동부 소속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운동부 특성상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유형과 피해사례 대처방법 교육 및 방학 기간 중 긴장감이 풀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청소년 문화조성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익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관내 25개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피해 및 단체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기합이나 폭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성재 익산서장은 “학교운동부의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각지대에서 교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환



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